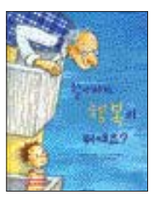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엄마, 화내지마=미국의 임상심리학자 토마스 고든 박사가 창안한 '부모와 아이의 소통법'을 토대로 구성한 책이다.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통해 따뜻하게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거인·9천원〉

▲안돼, 말리!=좌충우돌 온갖 말썽을 일으키는 강아지 말리와 그 말썽을 감싸 안으며 한가족이 되어가는 네 식구의 이야기가 감동을 준다. 말리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은 예사고, 변기물을 마시는 골칫거리다. 〈주니어랜덤·9천원〉



▲할아버지, 행복이 뭐예요?=행복의 순간을 찾아 다니는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하루가 펼쳐진다. 평범해 보이지만 곳곳에 담뿍 담겨 있는 일상의 행복을 일깨우는 동화다. 〈미래아이·8천원〉

▲민들레 씨앗에 낙하산이 달렸다고?=약해 보이지만 신기한 방법으로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식물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식물들의 역동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시공주니어·9천500원〉

▲무한도전! 33인의 컴퓨터 천재들=어떠한 편견과 한계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33인의 컴퓨터 천재들의 이야기다. 엔씨소프트사를 설립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게임왕국으로 이끈 김택진, 컴퓨터 의사 안철수씨, 빌 게이츠 등의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해냄주니어·9천500원〉

중국산, 우리삶의 약인가 독인가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사라 본지오르니 지음

최근 중국에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노른자위와 흰자위, 껍질까지 모조리 화학약품으로 만든 가짜 계란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공포를 피부로 느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생활 주변에서 TV, 오디오 등 가전제품은 물론 심지어 이쑤시개 하나까지 중국산 제품이 아닌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

삶 자체가 중국산에 점령당한 우리 주변에서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06년 미국은 장난감과 각종 도구, 전등, 컴퓨터와 같은 일상 생활용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미국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경제지 프리랜서 기자인 사라 본지오르니는 도발적인 실험을 감행한다. 200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중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인 것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는 저자가 남편 케빈, 네 살짜리 아들 웨스, 한 살짜리 소피 등 가족과 함께 중국산 제품을 보이콧 하면서 겪은 1년 동안의 '험난'했던 에피소드를 기록한 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평범한 의문에서 시작된 중국산 보이콧 운동을 통해 그녀가 느낀 것은 중국산 제품이 자신들의 삶을 통째로 지배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중국산 보이콧 운동의 실천 강령은 단순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 마크가 새겨지거나 라벨이 붙은 제품은 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번번이 좌절한다. 새 신발이 필요한 웨스를 위해 운동화를 사려했으나, 중국산을 피하는 과정에서 무려 1개월이 소요된다. 국산품을 수소문하던 과정에서 그녀는 자국에서 운동화생산이 지난 1960년대 이후 중단됐다는 씁쓸한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른다. 그녀가 결국 선택한 것은 중국산 운동화의 3배가 넘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신발이었다.

남편 케빈도 곤욕을 치르기는 마찬가지. 선글라스를 유독 좋아하는 그는 어느날 선글래스를 잃어버린다. 하지만 중국산 보다 월등히 비싼 선글라스를 사야하는 부담 때문에 어린이 놀이방에서 장난감 선글라스를 슬쩍(?)한 뒤 항의하는 어린이들에게 봉변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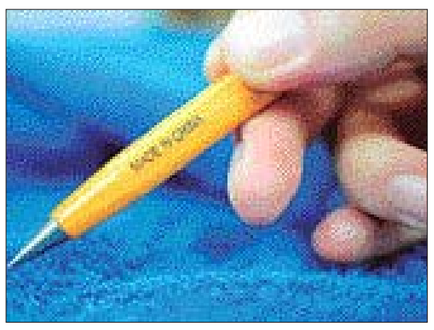
그녀 자신도 중국산 장남감을 사달라고 울며 조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중국산 보이콧 운동을 후회하기도 한다.

저자의 일화를 읽다보면 웃음을 짓게하는 에피소드 등장하지만, 중국산 제품들의 공세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사양길에 접어든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을 자연스레 돌아보게 된다.

책의 부록으로 MBC스페셜을 통해 방영된 '메이드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CD가 수록돼 있다. 중국산 보이콧 운동을 실천한 한국과 외국가정의 사례를 담은 영상물이다.

저자 사라 본지오르니는 "나는 거대한 세상에서 한 점 티끌에 불과할 지 모르지만, 그래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중국은 내 선택사항들을 제한하기도, 확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엘도라도·1만3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사상의 흐름 한눈에

백낙청 회화록 백낙청 지음

한국 지성사(知性史)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두꺼운' 책이 출간됐다.

'백낙청 회화록'(전 5권)은 우리나라 사상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968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참여한 좌담, 대담, 토론, 인터뷰 등을 묶은 책이다. 백 교수의 고희(古稀)를 기념해서 나온 것.

책에는 백 교수가 백철, 김동리 등 작고 인사를 포함해 리영희, 강만길, 고은, 프레드릭 제임슨 등 국내·외 지식인들 총 133명과 나눈 88편의 이야기가 3천여 쪽에 실려 시대별로 정리돼 있다.

'시민사회', '민족문학', '리얼리즘', '분단체제론' 등 그가 내세운 사상의 흐름은 수 십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1980년 '창작과비평' 봄호에 실으려 했으나 비상계엄 하의 당국에 의해 삭제된 좌담 '1980년대를 맞이하여'처럼 첫 공개되는 글들도 꽤 있다. 〈창비·각 권 2만8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연방 당국은 왜 마사를 괴롭혔나

마사 스튜어트… 로버트 슬레이터 지음

미국에서 '살림의 여왕'으로 알려진 마사 스튜어트는 집안과 정원을 가꾸고, 손님을 접대하는 등 평범한 주부의 일을 상품화해 성공을 거둔 억만장자다.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는 1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TV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가 하면 관련 책과 잡지 '마사 스튜어트 리빙'을 출간했다.

'잘 나가던' 그녀가 지난 2002년 최악의 오명으로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3년 후 마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인물에 선정되면서 보기좋게 재기한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널리스트 로버트 슬레이터는 '마사스튜어트.COM'을 통해 왜 마사는 피할 수 있었던 기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는지, 연방 당국은 왜 끈질지게 마사를 괴롭혔는지, 역경을 딛고 어떻게 눈부신 복귀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비전하우스·1만3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김진애 '이 집은 누구인가'

날씨가 차가워지면 따뜻한 아랫목이 절실하다. 빨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앞선다. 이런 계절 따뜻한 방에 누워 마음에 드는 책 한권 읽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기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시민문화예술체험 프로젝트 가운데 '내 마음의 느낌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사업은 100명의 시민이 개개인의 삶 속에 남은 노래와 잊지 못할 시 한 편, 나를 움직이고 살아있게 하는 책 한 권의 의미를 이야기한 7분 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시민들의 삶 속에 남아 오래도록 미소 짓게 하고 힘이 나게 만드는 그런 책 한 권, 노래 한 곡, 시 한 편 등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완성한 다큐멘터리는 한 편이었으되, 개개인의 추억과 삶이 담긴 100편으로 봐도 무방하다.

일상에 묻혀 나를 되돌아보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억들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심연의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고도 남는다. 마치 즐거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착한 웃음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리움이나 기억 등 삶 속에 오래 머물면서 인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집'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어머니의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이 그리워지듯, 어머니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밥 냄새 가득한 부엌이 떠오른다. 언제나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는 집과 밥 짓다 버선발로 뛰어나와 어깨를 토닥이는 어머니의 손길은 영원한 노스탤지어다.

집은 인생이 담긴 그릇

요즘 아이들은 아파트에서 자라 이런 부엌에 대한 향수가 없을 듯도 하다. 그래도 집은 안식처이고 휴식처로 가족들이 모이는 따뜻한 공간이다. 최근 한옥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생겨나서 한옥을 고쳐 사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였다. 아파트 사는 나도 가끔은 한옥의 멋스러움에 언젠가 한번쯤 살아보리라 다짐하곤 한다.

건축가 김진애의 사람 사는 집에 대한 열두 가지 생각을 볼 수 있는 책 '이 집은 누구인가'(샘터)는 집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듯 매일 살면서도 버릇처럼 여겨지던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마당이 갖는 매력과 작았지만 나만의 공간이었던 다락방, 요즘처럼 인테리어 소품이 없었던 시절 공부방이라면 앉은뱅이 책상하나면 되었던 그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책이다.

누군가의 초대로 집을 방문했을 때 집의 느낌은 대부분 주인의 느낌과 일치한다. 우리는 살아가며 단순히 먹고 자고 쉬는 공간 정도로 집을 생각한다. 그러나 집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담긴 그릇과도 같은 것이다.

그 속에 가족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집은 바로 당신이다. 오늘 집에 돌아가 자신을 한번 만나보는 것은 어떠한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깊어가는 가을에 마음 따뜻하게 만드는 추억들이 방울방울 떠오를 것이다.

오 건 탁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컴퓨터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영세자영업자	기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	3개월	11월 1일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1월 5일
	CAD	2개월	11월 1일
	MOS(Master)	2개월	11월 5일
	정보통신설비	2개월	11월 1일
	정보처리	2개월	매월 초
	정보화 기초 1,2	5주	매월 초

부동산실무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11월 12일
	주택관리사	2개월	11월 12일

※ 교육대상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일반인 및 대학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6개월 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08년도 신분보장과 생활안정된 직업은 지금 준비가 좋습니다

7·9급 공무원 합격특강

개강 11월 1일 주·야간반 종합반 단과반 모집

행정직 세무직 교정보호 검찰직 교육행정 소방직 기술직 사회복지

전통 46年! 실력있는 강사진 높은합격률자랑 수많은 선배님 입증!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회원 동부경찰서 뒤 ☎ 222-4560 www.mdgosi.co.kr

11월 1일 대개강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 영어, 수학,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TEPS

일반대, 사범대 편입반 | 약대, 한의대 편입반

MEET/ DEET 전문의준비반 |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 227-8088

DYMSCO 당스코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깔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찜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깔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敢히 해 볼 수 있는 제안!

CALEO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